

## 이야기는 철학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가?

— 문학 형식의 관점에서 접근한 플라톤의 『국가』

[서평] 이종환(2019), 『플라톤 『국가』 강의』, 김영사, 427쪽.

김 유 석\*

### 1. 머리말

국내에서 플라톤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국가』일 것이다. 또한 유명한 작품인 만큼 『국가』에 담긴 몇몇 주장들 역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철인통치론’이라든가, 시인들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국가 바깥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시인 추방론’ 등은 철학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혼이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든가, 혼의 삼분설에 기반하여 사회 계급 역시 철인통치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생산자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등도 플라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었거나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주장 그 자체만 놓고 보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면, 매우 이상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플라톤 연구자들이나 철학사가들은 다른 대화편들보다도 유독 『국가』에 관한 입문서와 해설서들을 많이 출판해 왔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과 대학 도서관에서 ‘플라톤’과 ‘국가’를 조합하여 검색해보면, 대화편 『국가』를 다룬 단행본들이 50여 종 이상 검색된다. 또한 그 종류 역시 번역을 제외하고도 개론서, 쉽게 풀어 쓴 해설서, 주제별 강의는 물론, 심지어 만화로 보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국가』가 수많은 토론 거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 사상의 보고임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서적들만으로는 『국가』에 담긴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살펴볼 이 종환 교수(이하 ‘저자’)의 『플라톤 『국가』 강의』 역시 『국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일종의 개설서로서, 『국가』 관련 입문서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이다.

저자 역시 이 책의 ‘서문’에서 플라톤의 『국가』에 관한 저술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저술들이 『국가』에 담긴 정치 철학이라든가, 형이상학처럼, 작품에 전개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왔음을 지적하면서, 본서의 목적은 『국가』를 개별적인 주제 중심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때 총체적인 시각이란 『국가』를 ‘그리스 고전기의 인간, 사회, 우주에 대한 고민과 답변의 시도’로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이야기’에 주목한다. 플라톤의 작품들은 대부분 대화 형식으로 쓰였는데, 이때 작품 속 대화자들과 대화 장소, 그리고 대화의 맥락과 배경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됨으로써, 마치 그리스의 희극이나 비극 속 이야기와 같은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작품에 담긴 개개의 철학적 논변들보다는, 작품의 열개를 구성하는 문학적 형식과 드라마적인 특성에 대한 고찰에

서 출발함으로써 대화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듯 『국가』를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서를 여타의 입문서들과 구별해주는 가장 독창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본 서평 역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의 측면에 맞추어 저자의 논의를 따라가고, 저자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서의 제목, 구성 방식과 내용

우선 본서의 제목은 『플라톤의 『국가』 강의』이다. 눈여겨볼 점은 ‘입문’이나 ‘개론’ 혹은 ‘이해’가 아닌 ‘강의’(講義)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저자는 ‘서문’에서 본서가 강의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결과물임을 밝히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무엇을 제목으로 삼든 플라톤의 대화편을 소개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저자는 굳이 ‘강의’라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본서가 순수한 이론적 성찰이나 사변적 반성에 걸맞은 서술 방식보다는, 생생한 수업 현장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을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구성과 관련하여 이 책은 『『국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짤막한 머리말을 제외하고, 총 14개의 글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sup>1)</sup>

『국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8쪽)

1. 『국가』는 이야기다(26쪽)

---

1) 14개의 글들은 ‘장’(章)이니 ‘절’(節)이니 하는 명칭 구분 없이 단지 번호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강의를 성격상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서의 제목이 ‘강의’인 만큼, 이 글에서는 각 번호들을 ‘제1강,’ ‘2강’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겠다.

2. 아테네 역사와 『국가』 이야기(17쪽)
  3. 이야기의 시작(1권 전반부)(28쪽)
  4. 트라시마코스와의 대화(1권 후반부)(24쪽)
  5.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도전(2권 전반부)(23쪽)
  6. 이상적인 국가의 원칙(2권 전반부)(29쪽)
  7. 수호자의 교육과 삶(2권 후반부~3권)(34쪽)
  8. 이상적인 국가의 덕과 이상적인 개인의 덕(4권)(27쪽)
  9. 철학자의 통치(5~6권 전반부)(31쪽)
  10. 철학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6권 후반부~7권)(36쪽)
  11. 이상국가의 쇠퇴와 다양한 정치체제(8~9권 전반부)(34쪽)
  12. 행복과 즐거움(9권 후반부)(41쪽)
  13. 예술 비판과 이야기 안의 이야기(10권)(24쪽)
  14. 이야기의 끝(5쪽)
- 『국가』 관련 참고문헌

대개의 대학교 강의가 한 학기에 15주 내외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구성 방식은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무려 43쪽에 달하는 참고문헌 목록이 붙어있는데, 문헌의 양도 양이지만, 무엇보다도 『국가』편의 주요 주제들에 따라 관련 문헌들이 잘 분류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독자들이 후속 연구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에는 본서의 내용에 관해 말하자면, 이 책은 작품의 성격과 작품 맥락을 소개하는 처음 두 강의 이후, 3강부터 마지막 14강까지 대체로 대화편의 논의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

먼저 제1강에서 저자는 『국가』라는 대화편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된 대화편의 성격에 맞춰 강의의 성격도 함께 규정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플라톤의 『국가』가 무엇보다도 ‘이야기’라고 단정한다. 저자는 이때 ‘이야기’가 무

엇인지를 규정하는 대신, 『국가』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도입부를 비교하면서 저자가 생각하는 이야기적 특성을 보여주려 한다. 이 비교에 따르면 『순수이성비판』 대표되는 일반적인 철학의 담론은 개별적 사례와 구체적 사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추상적인 담론을 통해서 진리의 보편성을 획득하려 하는 반면, 플라톤의 『국가』는 역사적 사건의 맥락 안에 위치하는 실존 인물들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 대화자로 등장하여 철학의 주제에 관해 각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토론과 논쟁을 펼친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란 희극이나 비극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인 형식과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적인 특징이 대화편 전체의 열개를 이룬다면, 『국가』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국가』라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서기전 432년 아테네의 모습과 그 역사적 공간 속에 실존했던 대화자들의 상황을 소개한다. 플라톤이 『국가』를 집필하던 시기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여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대화는 아직 전쟁이 발발하기 전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다. 그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거류외국인이자 무기상으로 거부가 된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 부자(父子), 아테네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자 실제로 플라톤의 형들이었던 글라우콘과 아테이만토스 형제, 그리고 소피스트 트라쉬마코스 등과 정의(正義, *diakiosynē*)의 본성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플라톤은 국적과 연령, 사회적 처지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 정의에 관해 저마다의 견해를 제시하게 하고, 다시 소크라테스가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정의의 본성에 다가가는 식으로 대화를 엮어나간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주제를 다루지만, 그 출발점과 접근 방식은 지극히 개별적인 인물들과 구체적인 입장에 기반한다는 점은 본서의 저자가 『국가』의 그 이야기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장과 4장은 『국가』 1권을 다룬다. 3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과 함께 아테네의 외항인 페이라이오스에서 벌어진 벤디스 여신의 축제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케팔로스, 폴레마르코스 등과 함께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검토하는 내용을 다루고, 4장에서는 대화의 도중에 소피스트인 트라쉬마코스가 난입하여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자, 소크라테스가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다. 본서의 저자는 여기서도 작품의 드라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예컨대 등장인물들이 제시하고 소크라테스가 검토하는 정의 규정들이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다양한 처지와 가치관 혹은 전통을 반영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본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국가』의 가장 드라마틱한 측면은 대화편의 첫 권, 첫 행, 첫 단어에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해석이다. 『국가』는 ‘내려갔다’(katebēn)라는 과거형 동사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친구와 함께 벤디스 여신께 기도를 드리고 축제도 구경할 겸, 아테네로부터 페이라이오스로 ‘내려갔다’고 말한다. 이것은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간다’(예컨대 ‘하행선’)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데, 저자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진리의 세계를 관조한 철학자(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동포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갖은 오해와 비난을 각오하고 현실의 세계로 ‘내려왔음’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국가』 7권에 묘사된 동굴의 비유에 이르러 한결 더 분명해진다.

플라톤은 『국가』 1권의 논의를 통해 ‘정의’에 관해 나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소개하고 검토한 뒤에, 『국가』 2권의 전반부에서 대화자들의 입을 통해 정의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것은 ‘정의로운 자는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정의를 찬양하지만, 정작 정의로운 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부정의가 승리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본서의 저자 역시 이 문제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3강 전체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룬다. 특히 저자는 한국 현실의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매우 생생한 방식으로 이 물음을 정식화한다. 저자에 따르면, 정의를 규정하는 물음은 그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찬양하고 정의로운 삶을 권하려 한다면,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수반된 지극히 실존적이고 긴박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편에 제기된 철학적인 문제들을 정식화한 후에, 저자는 6강부터 마지막 13강까지 대화편의 논의 순서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작품에 전개된 주요 철학적인 논제들과 논변들을 상세히 풀어내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6강에서는 정의의 본성을 용이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상의 국가를 수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체제의 특징을 검토하고(『국가』 2권), 7강에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을 살펴봄(『국가』 2~3권), 8강에서는 플라톤의 이른바 덕 이론에 기반하여 대화편의 주제였던 정의가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고찰한다(『국가』 4권). 그런가 하면, 9강과 10강에서는 이상 국가에서 통치자가 철학자여야 할 필요성(『국가』 5~6권), 그리고 그러한 철학자가 받아야 할 교육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국가』 6~7권). 한편 플라톤은 『국가』 8~9권에서 이상 국가의 타락과 그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들은 본서의 11장에서 다뤄진다. 특히 저자는 『국가』에 묘사된 다양한 정체들을 오늘날의 정치적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와 구속, 민주주의(민주정)와 독재(참주정) 등의 개념들을 다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강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12장에서 저자는 ‘정의로운 자는 행복한가’라는 처음에 제기된 문제로 돌아가 행복과 즐거움(쾌락)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룬다(『국가』 9권). 그리고 『국가』의 마지막 10권을 다루는 13강에서는 플라톤이 한편으로는 시인들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들의

이야기 방식을 차용하여 혼의 불사와 사후 세계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루면서 플라톤의 철학적 의도를 설명한다. 마지막 14강에서는 『국가』편의 논의 전체를 갈음하면서, 플라톤은 정의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물음을 추상적인 논변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입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 방식으로 드러내려 했다고 결론짓는다.

### 3. 본서의 장점

본서는 국내에 나와 있는 『국가』 관련 입문서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충분한 분량이다. 대부분의 입문서들 대략 200쪽 내외로 비교적 짧은 반면,<sup>2)</sup> 본서는 강의만 384쪽에 달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면 420쪽이 넘는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꼭 내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량은 어려운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쉬운 비유를 풍부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저자가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면서 『국가』의 주요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 상세하고도 입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철인 통치론이나 혼의 삼분설, 이데아론 등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데, 저자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최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플라톤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장점은 — 서평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본서의 가장 큰 미덕이기도 한데 — 저자가 『국가』편의 다양한 주제들을 최대한 총체적으로

2) 물론 모든 입문서들이 짧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영균(2008)이나 번역서인 네틀쉽, R. L. (2010)은 모두 350쪽이 넘는다.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는 덕 이론이 기반한 도덕 심리학, 혼의 불사 논증, 철인 통치론, 시민 교육론, 예술론, 이데아론에 기반한 형이상학 등, 다양한 주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개의 입문서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의미를 찾는 데 역점을 기울이지만, 각각의 주제들이 제기된 배경이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주제나 관점으로 총괄하는 일은 대화편의 주제적 단일성(the unity of dialogue)을 찾아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며, 기존의 수많은 논쟁들에 대한 평가와 전문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문서에서 다루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서의 저자는 강의 형식의 입문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플라톤이 『국가』라는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제들은 작품 내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서로 무관한 여러 주제들이 난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를 입체적이면서도 통일적으로 이해하도록 독자들의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아마도 저자는 『국가』편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적 욕구를 자극시켰을 것이다).

이상의 장점들 외에도 본서에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다. 기본적으로 본서는 『국가』에서 다루지는 다양한 주제들과 논변의 전개 과정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강의를 원전의 요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대화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저자는 플라톤의 『국가』가 가족과 같은 혈연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결핍을 겪는 개인들 간의 상호 의존에 기반한 일종의 계약 공동체임을 본서의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이 그렇다.<sup>3)</sup> 이로부터 저자는 플라톤의 공동체가 인간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잘 구축되고 질서 잡힌 조직과 체제

를 통해 변형한다고 해석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편의 철학적 결론이나 교훈들을 그저 소개하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현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다른 입문서에는 없는 본서만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 4. 『국가』를 이야기로서 바라보는 것의 의미

글의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플라톤의 『국가』를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하고서 작품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때 ‘이야기’란 고대 그리스의 희극이나 비극과 유사한 문학적인 형식과 성격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대화의 시간과 장소, 혹은 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설정되고, 그 안에 주로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여 소크라테스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대화들 속에는 철학적인 논제들과 함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감정의 흐름과 같은 문학적인 요소들이 공존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다루는 대부분의 저술과 논문들은 가급적 문학과 같은 비철학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철학적인 주장의 해석과 논변의 분석에 집중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를 비롯한 플라톤의 작품들은 문학적 대화의 형식을 띠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고, 대화편의 독서를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것 역시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철학적인 교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서는 여타의 일반적인 『국가』 입문서들과 달리, 대화의 문학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문학적인 분석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철학적 대화에 대한 문학적 접근법

3) 예컨대 pp. 82-84(3강), pp. 132-134, pp. 147-158(6강), pp. 245-247(9강), pp. 268-276(10강) 등.

을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서는 서양 철학사 안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이미 고대인들 사이에서도 호기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물론 철학적 대화가 플라톤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스승의 대화 방식을 모방하여 글을 쓴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글쓰기를 ‘소크라테스식 담론’(logoi sōkratikoī) 혹은 ‘소크라테스식 대화’(dialogoi sōkratikoī)라고 부르며 마치 서기전 5~4세기에 유행하던 하나의 문학 양식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sup>4)</sup> 하지만 플라톤의 작품들이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다른 철학적 대화들을 압도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듯하다. 그래서 고대의 학설사가들이나 플라톤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다루기에 앞서 항상 철학적 대화편의 특징과 요소들을 규정하곤 했다. 그들 가운데 서기 3세기 무렵의 학설사가였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철학 및 정치적 주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담론으로서, 대화자들의 고유한 성격을 동반하며, 잘 다듬어진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정한다.<sup>5)</sup> 이 규정은 플라톤 대화의 특징을 형식과 내용, 그리고 대화자의 측면에서 잘 보여준다. 먼저 형식의 측면에서 플라톤의 대화는 의견 교환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이른바 변증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내용면에서는 주로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주제들을 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모두 탐구의 주체인 대화자들을 통해 구현된다. 즉 일반적인 철학서에서는 저자 자신이 화자가 되어 1인칭으로 철학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반면, 플라톤의 대화에서는 저자가 사라지고, 그대신 등장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탐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때 대화자들은 그저

4)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 1447a28-b3; 『수사학』 III, 1417a18-21.

5)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학설』 III, p. 48.

대사를 전달하는 프롬프터가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속에서 각자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구체적인 인물들이다.

본서의 저자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고대인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이해하는 방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사실 본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플라톤 대화편의 ‘이야기적’ 특성은 ‘대화자들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고 잘 다듬어진 표현으로 전달되는 담론’이라는 고대인들의 규정에 상당히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은 『국가』 1권에서 정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검토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각의 견해들이 그것에 걸맞은 대화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장된다는 사실이다. ‘정의는 빛진 것을 갚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업가인 케팔로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규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소피스트 트라쉬마코스의 입에서 나오는 편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이들의 정의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논제들의 탐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라지고 대립하는 윤리·정치적 신념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플라톤은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실에서 학자들이 행하는 사고 실험을 택하는 대신,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생생하게 대립시키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설정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저자가 논증에 비해 입증의 부담을 덜 진 채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견해를 암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본서의 저자는 『국가』 1권 도입부의 첫 단어인 ‘(나는)내려갔다’(katebēn)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어휘 선택은 『국가』편의 핵심 사상, 즉 진리를 관조한 철학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옴’을 암시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암시는 『국가』 7권에 묘사된 ‘동굴의 비유’를 통

해 확인된다. 즉 소크라테스가 축제를 보러 아테네 중심을 벗어나 인근의 페이라이오스항으로 ‘내려갔다’라는 문학적인 미장센은, 이것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비록 그 자체로는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국가』 1권과 7권의 주제를 훌륭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서의 저자는 이 외에도 『국가』에 묘사된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 안에서 철학적 의미들을 읽어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대화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 철학적 대화편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소 김이 빠질 수도 있지만, 막상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해 문학적인 접근법을 취한 입문서나 연구서들은 많이 없는 편이다. 이런 방식의 연구 자체가 없는 국내의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심지어 해외의 경우에도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이야기적인 접근을 다루는 저술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서양 고전학(greco-roman studies) 분야에서는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고대 철학의 분야에서는 매우 드물게만 발견될 뿐이다. 왜 그럴까? 철학사가들이 대화편의 문학적 장치들에 대해 선뜻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해석이 옳다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첫 단어(‘내려갔다’)에 숨은 철학적 의도는 플라톤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처럼 작품의 첫 단어에서 주제를 암시하는 전통의 기원을 호메로스로 보곤 한다. 예컨대 『일리아스』 1권 1행의 첫 단어는 ‘분노’(mēnis)인데(‘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이 작품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이다. 그런가 하면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오뒷세아리아』의 첫 단어는 ‘남자’(anēr)인데(‘그 남자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주세요, 여신이여!’), 이 작품의 주제는 ‘오뒷세우스라는 남자의 이야기(귀향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내려갔다’라는 첫 단어가 대화편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인 철학자의 임무를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플라톤이 대화편 곳곳에서 호메로스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자주 언급하는 걸 보면, 그가 호메로스의 글쓰기 방식을 흉내냈으리라고 추측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추측의 여지가 충분할 뿐,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국가』의 첫 단어에 담긴 주제의 암시를 선뜻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렇게 보았을 때 작품의 전체의 주제적 통일성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제적 통일성이 잘 보일 뿐 증명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문학적 해석의 맹점이 숨어있다. 문학적 요소들은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를 통해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그것들 자체가 입증되거나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철학사가들은 논증이 어려운 문학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고, 작품 속에 전개된 철학적 논변들만을 가지고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문학적 요소의 철학적 사용이 얼마나 많은 대화편들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도입부처럼 다수의 철학사가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컨대 학자들 중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작품 배경으로 삼은 『파이돈』의 경우에도 첫 단어에 주제에 관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대화편의 첫 단어는 ‘자기 자신’(autos)인데, 작품 속 화자는 대화 상대에게 ‘당신 자신이(autos) 소크라테스가 죽던 날 그와 함께 있었는가’라고 묻는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언제나 자기 동일성(~임 자체)을 유지하는 가지적 형상을 암시한다고 본다. 실제로 『파이돈』은 플라톤의 형상 이론이 등장하는 최초의 대화편으로서,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형상의 존재를 가정하여 혼의 불사에 관한 논증을 수행한다. 하지만 첫 단어

가 형상 이론을 암시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더욱이 양자의 관계가 『국가』만큼 작품의 통일성을 잘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파이돈』의 암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다룬 『티마이오스』를 예로 들어보자. 플라톤의 거의 말기 작품에 해당되는 『티마이오스』는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그런데 네 번째 손님은 어디에 계시죠?’라는 소크라테스의 대사로 시작된다. 서기 1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가운데 몇몇은 플라톤이 말년에 신플타고라스주의로 전향했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첫 대목이다. 여기에 나오는 수(한 분, 두 분, 세 분, 네 번째 분)를 모두 더하면 10이 되는데, 수를 세계의 원리로 생각했던 신플타고라스주의자들은 이 네 개의 수들이 완전수를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의 첫 대목에서 수를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정체성에 대한 암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역시 입증할 수는 없지만, 『티마이오스』의 우주제작자가 수적인 비례를 사용하여 세계의 질서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의 두 사례와 달리, 『티마이오스』의 경우는 오늘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학자들은 플라톤이 생애 말년에 신플타고라스주의로 전향했다는 주장 자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대목에서 열거된 수들을 신플타고라스주의의 완전수라고 해석할 이유는 사라져버린 셈이다. 첫 대목의 숨은 의미는 다른 것에서 찾거나,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철학적 대화를 하나의 이야기, 혹은 문학적 관점

---

6)           \*           1  
           \* \*       2  
           \* \* \*     3  
           \* \* \* \*   4  
           1 + 2 + 3 + 4 = 10

에서 접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요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들 다수의 열개를 이루며, 텍스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풍부함이 논증을 통해 확고함을 얻지 못하고 해석의 개연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티마이오스』의 경우처럼 잘못되었거나 적어도 논란이 되는 전제 위에 서서 문학적인 요소들을 해석할 경우, 플라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플라톤의 대화들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사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석의 개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에서, 이야기를 통한 접근이 단순한 논변 분석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런 점에서 본서의 시도는 상당히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 6. 결론을 대신하여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본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국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들과 많은 사례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저자가 사례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저자는 어느 대목에서는 『국가』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각종 비유와 사례들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대목에서는 거꾸로 『국가』에서 도출된 교훈을 가지고서 현실의 사례를 해석하거나, 더 나아가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평자는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강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다 보면 책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현실을 사례를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의 교훈을 전거로 삼아 현실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평자로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의미 있으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전자가 고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후자는 고전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두 기능은 구별되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논의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책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흠결을 찾아내어 지적하기에는 본서가 지닌 장점이 훨씬 크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독자들이 『국가』를 직접 읽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고전에 잘 적용되는 말도 없다. 고전을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리고 다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은 고전을 한 번 더 읽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의 양과 깊이가 확연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고전 관련 입문서나 해설서의 역할은 해당 고전을 읽는 독자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가 지닌 매력과 장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며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논 저】

- 김영균(2008), 『국가 — 훌륭한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 살림.  
네틀십, R. L. (2010), 『플라톤의 국가론 강의』, 교육과학사.  
아리스토텔레스 (2017), 『수사학/시학』, 천병희, 숲.  
이종환 (2019), 『플라톤 『국가』 강의』, 김영사.  
플라톤(2013), 박종현 옮김, 『국가·정체』, 서광사.  
플라톤(2013), 전현상 옮김, 『파이돈』, 이제이북스, 2013.  
플라톤(2013), 김유석 옮김, 『티마이오스』, 아카넷, 2013.

Laertius, D. (2013), *The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Cambridge, CUP.